

芝山 曹好益의 禮學思想

高 英 津*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3. 『家禮考證』의 분석 |
| 2. 예학의 형성과정 | 4.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시대 예학의 발전과정에 대해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16세기 성리학의 심성론이 심화된 결과 17세기에 가서 비로소 예학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왔다. 이에 반해 필자는 『조선중기 예학사상사』를 비롯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이미 16세기 중반부터 예학은 그 자체 내의 독자적인 과정을 통해 발달해오다 17세기에 성리학 이해의 심화와 양란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한 단계 level up된 것으로 이해하였다.¹⁾

즉 『주자가례』를 중심으로한 유교적 생활관습의 시행이 축적된 결과 생활규범서로서의 祭禮書가 16세기 중반부터 저술되는데 이러한 家禮書의 출현은 예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본격화되는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16세기 후반 유교적 생활관습이 사회전체로 확대되기 시작하고 경서비판과 전례논쟁 등을 거치면서 예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본격화되자 가례에 대한 관심의 영역도 점점 넓혀져가 그 결과 喪祭禮書와 四禮書가 차례대로 저술되었다.

家禮註釋書로서의 사례서의 등장은 家禮諺解書의 대두와 함께 주자가례에 대한 연구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였다. 결국 예론과 예설의 심화는 예서의 체제와 내용에서도 반영되는 것으로서, 제례서→상제례서→사례서로 변화해간 과정은 예에 대한 연구의 심화과정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예학의 전개과정은 영남의 이황학파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고려 말 정몽주가 주자가례에 따라 선조를 봉사할 것을 주장한 이래 유교적 생활관습은 성리학적 소양을 강하게 지닌 이 지역 사림가문들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 김숙자

* 광주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高英津, 1991 「16세기말 四禮書의 성립과 禮學의 발달」 『韓國文化』12 ; 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의 「祭儀」등과 김종직의 『彝尊錄』은 바로 자신의 가문에서 행했던 유교의례를 정리한 것으로 제례서의 선행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현보의 「祭禮」와 이언적의 『奉先雜儀』와 같은 제례서가 등장하였는데 『봉선잡의』는 당시 제례서 가운데 제일 수준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제례서의 출현과 동시에 예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고조되었다. 서경덕과 조식에 비해 관혼상제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예에 대한 관심의 확대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이 이황이었다. 그는 그 자신이 예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제자들에게 주자가례를 강의하고 문인 및 가족들과 예에 관한 많은 서신들을 남겼는데 이것들은 뒤에 조진에 의해 『退溪喪祭禮答問』이라는 책으로 편집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례와 제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일관된 체계 속에서 서술하는 상제례서가 대두하였으니 김성일의 『喪禮考證』은 이황학파의 대표적인 상제례서였다. 또한 주자가례를 종합적으로 이해해 보려는 노력도 이루어져 주자가례에 대해 주석작업을 한 가례주석서가 등장하는데 1570년을 전후하여 저술된 이덕홍의 『家禮註解』와 김룡의 『家禮講錄』은 당시 초보적인 가례주석서로서는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제례서와 초보적인 가례주석서를 바탕으로 16세기 말에 나타나는 것이 본격적인 가례주석서로서의 사례서였다. 『家禮註說』을 저술한 송익필과 『家禮輯覽』을 저술한 김장생이 이이학파에서 본격적인 가례주석서로서의 사례서의 문을 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면 『家禮考證』을 저술한 조호익은 바로 이황학파에서 그 문을 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선 중기 예학사에서 조호익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조호익의 예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²⁾ 이는 조호익의 예학이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이같은 문제의식 위에서 조호익의 예학사상을 살펴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정구에 치중되었던 기존의 연구 경향을 극복하고 이황학파 예학의 내적인 발전과정을 균형있게 복원하며 동시에 전체 예학사에서 조호익을 객관적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작업과 다름 아니다.

2) 과문인지는 몰라도 조호익의 예학사상을 다룬 논문은 지금까지 없으며 금장태가 조호익의 전체 사상을 다룬 글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琴章泰, 1996 「芝山 曹好益의 사상」 『退溪學派의 思想』 I 집문당 참조)

2. 예학의 형성과정

조호익이 언제부터 예학에 관심을 가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체로 1570년대 초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571년 그는 父親喪을 당하여 모든 과정을 禮儀에 맞게 극진하게 치루었다. 그런데 이듬해에 또 母親喪을 당하였다. 모친상 역시 주자가례에 따라 지냈지만 부모의 상을 연달아 당하는 變禮의 경우를 당하여 주자가례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학자의 儀節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당시 학자의 상당수가 그랬듯이 그도 집안의 喪을 계기로 예학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또한 그를 비롯해 전 가족이 강동으로 유배를 간 것도 예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햇수로 5년만인 1575년 喪이 끝났지만 마침 그때 명종비인 인순왕후가 죽자 조호익은 禫祭를 행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때 경상도 도사였던 崔滉이 軍籍에 올리는 일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겼는데 그는 모친상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또 병이 중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최항은 토호로서 명령에 항거한다 보고하여 마침내 강동으로 全家徙邊 되었던 것이다.

강동에 가서 먼저 그가 닦았던 문제는 제사문제였다. 비록 장자는 아니었지만 어찌든 조상의 제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그로서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본래 支子は 독자적으로 忌祭를 올릴 수 없고 時祭 역시 마찬가지로 행할 수 없었는데도 부득이 紙榜을 써서 부모의 기제사를 올리고 마찬가지로 조상의 시제를 행했던 것이다. 이처럼 예법에 없던 두 차례의 경우를 경험하고 그 변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호익이 예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호익은 그가 귀양간 지역이 유교적 생활관습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관서지방인 것을 계기로 그 지역의 유교적 교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578년 관서인들이 古禮를 알지 못한다 하여 壇을 만들어 鄉飲酒禮를 행하여 揖讓하는 예절을 보여주었다. 또한 『예기』 「玉藻」편에 기반하고 丘濬의 설을 참조하여 深衣와 緇布冠을 몸소 제작하고 입어보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게 했다. 이때 조호익은 심의에 관한 詩를 남기기도 했다.

緇布冠을 쓰고 심의를 입으니 古制가 순후한데
 요순시대의 남아있는 모습 자연 그대로의 참됨이네.
 서로 만나 피이 여기고 크게 풍속을 놀라게 했지만
 은·주를 불러 일으켜 몸 위에 놓네.³⁾

3) 『芝山集』권1 「深衣」

이듬해인 1579년에는 學規를 세워 학도들의 학문 공부를 권장하고 학풍을 진작하였다. 朴大德·尹瑾·金翼商·洪德輝 등 문인들을 길러내고 李時稷·金堉 등이 찾아와 수학하고 절친한 친구였던 정구가 찾아와 만난 것도 이때였다.

예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587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해 조호익은 주자가례를 읽고 의문스런 내용에 대해 고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주자가례의 각 항목에 따라 문장 위에 고증한 내용을 표시하여 살펴보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그가 고증을 본 주자가례 책은 문인이 김육에게 주어 뒤에 『가례고증』이 완결된 체제를 갖추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그는 17년간의 귀양생활에서 풀려나지만 곧바로 의금부 도사에 임명되고 문인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전쟁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웠다. 전쟁 기간 중에 성천부사에 임명되어 학교를 부흥시키고 예학을 숭상하여 교화가 크게 행하게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거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향촌에 은거하였다.

1599년에는 병이 극심해지자 평소에 저술한 글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經傳諸書에 대한 주자의 주석이 의리가 치밀하고 해석이 상세하여 더 이상 군더더기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해 영천 西陶村으로 이사하여 큰 집의 가묘를 일으켜 세우고 신주를 새로 만들어 고평하는 제사를 행하였다. 이후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썼으며 1604년에는 鄭四震과 1607년에는 鄭湛·任屹 등과 예에 관한 서신을 주고 받기도 하였다. 아마도 이때 다시본격적으로 예학 연구에 힘썼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하여 1609년 『가례고증』을 저술하기 시작하였으나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를 보면 조호익의 예학적 연구 성과는 1600년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미 1570년대부터 그가 예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1580년대 후반부터 주자가례의 고증작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20여 년의 학문적인 축적기간을 거쳐 『가례고증』을 저술했던 것을 알 수 있다.

3. 『家禮考證』의 분석

1) 체제

『가례고증』은 조호익이 1609년 저술하였으나 그는 이 예서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전에 자신이 고증을 보았던 주자가례 책을 제자인 김육에게 주었던 관계로 1646년 김육과 문인들이 그 책을 바탕으로 보완하여

완결된 체제로 편찬하였으며 1650년 閔應協이 경상감사로 있을 때 김육의 청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총 7권 3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머리에 김육의 서문이 있고 6권 마지막에 저자 미상의 발문 성격의 글이 있다. 전체 체제는 다음과 같다.

- 1책(天) 권1: 序, 祠堂
권2: 深衣制度
- 2책(地) 권3: 司馬氏居家雜儀
권4: 冠禮
권5: 昏禮
- 3책(人) 권6: 喪禮(初終-大斂)
권7: 喪禮(成服-居喪雜儀), 祭禮

이 가운데 6권까지가 조호익이 직접 저술한 것이고 7권이 그의 사후 문인들이 보완 편집한 것이다. 저자 미상의 발문에 의하면 조호익은 7권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이미 관서지방에 있을 때 초고를 완성했으나 1599년 병이 심하여 자신의 저술을 불태워버릴 때 그 초고도 없애 버렸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육에게 준 주자가례 책자는 단지 대강의 내용만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조호익이 직접 쓴 부분에 비해 대단히 소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덧붙여 서술하고 있다.⁴⁾

이를 보면 『가례고증』의 편찬은 이미 1587년 주자가례의 고증 작업을 계기로 시작되어 이후의 추가작업을 거쳐 20년만인 1609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다 이루지 못해 결국 40년 뒤인 1646년 문인들에 의해 완성되지만.

조호익이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김육이 서문에서 적고 있다. 즉 주자가례가 先聖이 남긴 경전에서 나왔지만 은미한 문장과 오묘한 뜻을 모두 알기 어려워 학자들이 병통스럽게 여겼는데 조호익이 해석하지 못한 문자와 궁구하기 어려운 사물을 출처를 살펴 밝히고, 많은 經史를 인용하여 증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여 후학자들로 하여금 책을 펴면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⁵⁾

4) 『家禮考證』 권6 「跋」

右考證乃先生晚年之所撰也 斯文不幸未克卒業 判書金公墳親炙最切 所藏家禮冊子 上有先生筆跡即先生在江東時手書也 於是哀而合之 初喪儀大斂以上則從本藁 以下則從冊頭所錄 然後首尾無關得爲全書 吁亦不幸中幸也 蓋先生亦嘗輯此編於關西 草成而燬于丙丁 冊頭所錄只存其梗槩 故比諸本藁 前後詳略雖似大相不同 然皆出於先生之手 則是書之成始成終豈偶然而已

5) 『家禮考證』 「序」

顧其爲書出於先聖遺經 微辭奧義有難盡識 學者病之 我先師芝山先生聞道甚早學本爲己 博極羣書研窮義理 而於禮學着工尤切 遂就此書探蹟幽隱 凡文字之未解者事物之難究者 考其出處而明之 多引經史而證之 間亦附以己意 使後之學者開卷瞭然 有若親承提誨於函丈之間 豈不爲後學

또한 그는 조호익이 세상이 쇠퇴하고 예가 점점 붕괴되어 가는 것을 염려하여 『가례고증』을 저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주자가 주자가례를 저술한 好禮의 마음이 곧 先聖의 마음이고 조호익이 『가례고증』을 저술한 好禮의 마음이 곧 주자의 마음으로 결국 삼자는 하나라는 것이다.⁶⁾

『가례고증』은 앞에서 보았듯이 서, 사당, 심의제도, 사마씨거가잡의, 관례, 혼례, 상례, 제례 등 8개의 큰 항목으로 되어 있다. 각각에 속해있는 항목의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⁷⁾

이 표를 보면 주자가례의 설명(註)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책의 주석작업이 주자가례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은 사후 문인이 편집한 7권을 제외하고 조호익 스스로가 저술한 6권까지를 당시 가장 방대하고 수준높은 가례주석서인 김장생의 『가례집람』과 비교해 보아도 잘 드러난다.

『가례집람』은 서, 사당, 심의제도, 사마씨거가잡의가 1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관례와 혼례, 상례의 초종에서 성복(上)까지 각각 1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권수로만 따지면 결국 6권으로 이루어진 『가례고증』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물론 양자의 권의 분량에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항목 수에 있어서나 그 항목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나 『가례고증』이 결코 『가례집람』에 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양적인 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에서도 『가례고증』은 『가례집람』에 비견된다. 이 책은 여느 다른 가례주석서와 마찬가지로 주자가례의 내용에서 항목을 뽑고나서 그에 관한 경전과 학자들의 예설을 주석으로 달고 필요한 경우 '按'이라 하여 저자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간단한 용어의 설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전거를 단 상세한 주석을 가하고 있으며 여러 학설 간에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주석작업에서 한치의 의혹이나 미진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또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수의 항목들이 다른 가례주석서와는 달리 용어나 구절이 아니라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보다는 종합적이고 철저한 이해를 추구한 데서 나온 것이다. 김육이 이 책의 서문

之大幸

6) 『家禮考證』 「序」

噫冠昏之義喪祭之文備載於禮經 而朱子集之爲家禮 朱子好禮之心即先聖之心也 四禮既備兼有註疏 而先生猶慮夫世益下而禮益壞 著考證以明之 先生好禮之心即朱子之心也 傳所謂其揆一也者 豈不信哉

7) 표에서 고딕으로 진하게 쓴 항목은 주자가례의 大·小항목에 해당하고 나머지 항목은 주자가례의 설명(註) 부분에 해당한다.

에서 자신의 스승을 힘을 다하여 말 한 마디, 글자 한 자에 한치의 미진함도 없게 하려고 노력했던 완벽주의자로 서술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조호익이 주석을 달면서 인용한 책과 학자들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이를 보면 인용한 책의 경우 三禮를 비롯하여 『대대례』, 『사마씨서의』, 『의례경전통해』, 『가례의절』, 『개원례』 등의 예서와 『상서』, 『시경』, 『논어』, 『이아』 등의 경서, 『춘추』, 『사기』, 『한서』, 『당서』 등의 역사서, 『성리대전』, 『주자대전』, 『소학』, 『주자증손여씨향약』 등의 性理書 등 매우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용한 학자들도 공자와 주자를 비롯하여 한대의 정현, 당대의 공영달·가공언, 송대의 정이·장재·진순, 명대의 구준 등 40여 명에 달하였다.

이는 『가례고증』의 학문적 넓이와 깊이가 『가례집람』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가례집람』이 당시 예학에 조예가 깊었던 조선 학자들 대부분의 견해도 함께 인용한 데 반하여 『가례고증』은 중국의 예서와 경서, 중국 학자들의 학설만을 인용했다는 점이다. 조선 학자로는 자신의 스승이기도 한 이황의 설을 唱喏 항목에서 딱 한 번 인용했을 뿐이다. 이 점에서는 오히려 송익필의 『가례주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1) 『朱子家禮』에 대한 인식

조호익의 예학의 특성은 『가례고증』의 체제 뿐만 아니라 각 항목 속에서 ‘按’ 또는 ‘愚’라고 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부분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먼저 그는 주자가례를 미완성의 저서로 인식하였다.⁸⁾ 즉 주자가례가 옛 성현의 뜻을 기반으로 했지만 구체적인 저술과정에서 완벽을 기하지 못해 미흡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풀기 위한 고증과 주석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은 김장생을 비롯해 당시 가례주석서를 저술한 다른 대부분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⁹⁾

실제로 주자 사후에 발견된 주자가례는 후대 학자들에 의해 時俗보다는 古禮를 상대적으로 중시했던 주자 만년의 정설과는 달랐던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黃榦·楊復·周復 등 주자의 문인들에 의해 만년 정설에 맞게 보완·개정하려는

8) 『家禮考證』 권3 「司馬氏居家雜儀」 異端……其志
按荀楊之學 程子以爲大駭 朱子以爲荀子全是申韓楊子全是黃老 然則豈初學所宜讀 夫楊之比荀又特甚焉 而濫公尊信雄書故取之 朱子未及刪定要之 家禮未成之書故也

9) 李承妍, 1992 「조선조에 있어서 주자가례의 '절대성'과 그 '변용'의 논리」 『韓國의 哲學』 20에서는 조선의 주자학자들이 대부분 주자가례를 미완성의 저작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때문에 오히려 주자가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그 대체적인 방향은 '古禮로의 복귀'였다고 보았다.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10) 『성리대전』에 실려있는 주자가례의 경우 주자의 원문 아래 양복의 小註가 붙어있는 것도 양복의 수정본을 수록했기 때문이다.

조호익은 시속보다는 고례를 더 중시했다. 이는 시속을 상대적으로 중시했던 스승 이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11) 『가례고증』항목 여러 곳에서 그는 당시 사람들이 고례와 주자가례를 따르지 않고 시속을 행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冠服을 논하면서 조선의 의복제도가 모두 중국의 제도를 따랐으나 아직도 舊俗에 얽매어 고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계속 사신들이 가서 그 제도를 물어 고쳐왔던 것이 다행이라고 보았던 것이나,12) 祝板에 기재하는 부인의 칭호에 대해 논하면서 孀人이라는 칭호가 고례에서는 大夫의 처를 의미하고 今制에서도 역시 관직이 없는 사람의 처를 뜻하는 것이 아닌데 왜 지금 사람들은 꼭 先賢의 설을 버리고 시속을 따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13) 그리고 宗子가 스스로 결혼할 경우 族人의 연장자가 主昏者가 된다는 항목에서 國俗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잘못 행하고 세상도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므로 禮文을 상세히 수록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14)

물론 문인 鄭湛이 서신으로, 俗節에 묘에 가서 제사 지내거나 忌祭에 부모를 같이 舍設하거나 紙榜에 축문이 없는 것 등이 주자가례의 내용과 위반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의리를 해치지 않는다면 시속을 행해도 가하다고 대답하고,15) 『가례고증』에서 括髮·免·髮 등을 설명하면서 縫絹之說이 고례에는 없고 世俗에서 행하는 것이나 역시 무방하다고 하는16) 등 시속을 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17)

10) 鄭景姬, 1998 「朱子 禮學의 형성과 <家禮>」 『韓國史論』39

11) 時俗을 강조한 이황 예학의 특성에 대해서는 周何, 1978 「李退溪의 禮學」 『退溪學報』19 와 裴相賢, 1995 「退溪 李滉의 禮學思想」 『退溪學報』85 참조.

12) 『家禮考證』 권1 「祠堂」 背子
我國男女之服貴賤之制 雖曰一遵華制 而其間因仍舊俗相承而不改者 亦已多矣……今我國使命之往來 項背相望于途 因詢問其制 以革千古之陋 則豈非我國衣冠之一大幸也

13) 『家禮考證』 권1 「祠堂」 某氏夫人
按夫人二字在宋制亦非卑者之稱 如國夫人郡夫人之類……且孀人之稱 在古禮必大夫之妻 在今制亦非無官者之妻 何必捨先賢而從俗哉

14) 『家禮考證』 권5 「昏禮」 但宗子自昏……之長爲主
又按禮文曲折如此 而國俗妄行無據 世亦無覺其非者 故詳錄于此使有所考云

15) 『芝山集』 권2 「答鄭清允」
又按國俗鄙野 至于麗季有不知立廟奉先 則自王氏以上 但有上墓一祭明矣 此雖曰非禮之舉 而其所從來者亦遠矣 故我晦齋退溪兩先生 亦從俗而不廢 豈亦不以無害於義理之故也……其于廟于墓 雖不同而從俗則一也 矧如新安舊俗烹豕喚福 其鄙俚亦甚 而猶且從之乎 故曰事之無害於義者從俗可也

16) 『家禮考證』 권6 「喪禮」 括髮……別室
縫絹之說 古禮無考疑 世俗所爲 而亦無妨也

17) 금장태, 1996 앞의 글에서도 이 점을 조호익 예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호익의 서신만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연이은 父母喪과 강동으로의 유배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變禮를 행해야만 했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감이 없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시속을 따르는 데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호익은 주자의 本意를 강조하였다. 『가례고증』에서 冢婦가 시부모에게 음식을 올리는 항목을 고증하면서 『가례의절』의 내용을 언급하며 구준이 당시 世俗의 禮를 취하여 주자가례의 바른 내용과는 다름을 비판하고,¹⁸⁾ 상례에서 세속이 주자가례의 家禮圖가 주자의 본의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고 왕왕 그 설에 근거하여 棺中에서 大斂을 행하는데 이는 고례가 아니니 讀禮者는 세세히 상고할 것¹⁹⁾ 등을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주자의 본의는 주자의 만년 정설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주자가례에 주석을 달면서 주자의 본의를 강조한다는 것은 주자가례를 주자의 만년 정설에 맞게 보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조호익이 가례주석서의 성격을 지닌 『가례고증』을 저술한 것은 주자가례를 주자의 만년 정설에 맞게 새롭게 복원시키려는 작업과 다름 아닌 것이다.

당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고례를 행하는 것이 주자의 만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²⁰⁾ 그러므로 주자의 만년 정설이 있다고 보고 주자가례를 그 설에 맞게 복원하려는 조호익이 시속보다 고례를 중시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가례고증』을 저술하면서 조선 학자들의 설을 함께 참고한 『가례집람』과는 달리 중국 학자들의 설만을 참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조선 학자들의 설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선의 상황, 즉 조선에서 행해지던 시속을 덜 고려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조호익이 주자가례를 조선사회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완벽함을 추구하였으며 따라서 그의 예학이 현실성이나 실용성에서는 뒤떨어졌음을 의미한다.

(2) 『禮記』중시의 전통

주자는 만년에 家·鄉·邦國·王朝禮의 체제를 갖춘 『儀禮經傳通解』를 저술하였다. 그러나 이 책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문인인 황간과 양복이 상례와 제례를 보완하여 『儀禮經傳通解續』을 저술하였다.

18) 『家禮考證』권5 「昏禮」 洗盞斟酒……婦降拜

按此一節 立文太簡 故語意未瑩……丘氏盖取當時世俗之禮 非家禮節文之正也

19) 『家禮考證』권7 「喪禮」 舉尸納于棺中

世俗不知卷首圖非朱子本意 往往據其說 就棺中大斂 殊非古禮 況棺中逼窄結絞甚難 讀禮者細考之

20) 『芝山集』권2 「答鄭君變問目」

(問) 弔禮放之於家禮 則是朱子從俗之制 而今當以古禮行之者 乃朱子晚年教也

똑같이 『의례』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주자가례보다 상대적으로 고례를 중시했던 『의례경전통해』는 주자 사후에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나 내용에서 주자의 본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²¹⁾

따라서 후대의 학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주자가례를 주자의 만년 정설에 맞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주자의 예서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즉 주자 예학에서 주자가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둘러싸고 주자가례가 주자의 만년의 생각과 다른 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과 주자가례보다는 만년에 주자의 변화한 예설을 반영한 『의례경전통해』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갈라졌던 것이다.

조선의 경우 김장생이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정구는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학자들은 주로 주자가례를 보완하는 가례주석서를 만드는 데 비중을 두었으며 후자에 속하는 학자들은 주자가례와는 체제가 다른 王土禮書나 禮記註釋書 등을 저술하는 데 더 비중을 두었다.

한편 예학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전체 예학사에서 주자 예학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하였다. 그리하여 학자들 사이에는 주자가례와 『의례』등을 중시하는 경향과 『예기』와 『주례』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뉘기도 했는데 김장생과 정구 등이 전자에 속했으며 한백겸이나 허목·윤휴 등은 후자에 속하였다.

결국 주자 이후의 예학사는 중국이나 조선을 막론하고 주자가례를 중시하느냐, 『의례경전통해』를 더 중시하느냐, 아니면 『예기』와 『주례』등을 중시하느냐 하는 세 개의 큰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례주석서를 저술한 조호익은 이 세 흐름 가운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에 가까웠다. 그러나 주자가례를 주자의 만년 정설에 맞게 복원하는 방법은 김장생과는 차이가 있었다. 즉 『가례집람』이 조선학자들의 예설을 함께 인용한 데 반하여 『가례고증』은 중국의 경서와 예서, 중국학자들의 예설만을 인용하였으며 특히 『예기』와 구준의 『家禮儀節』주로 참조하였다.

조호익이 이 책들을 중시했다는 것은 강동에 유배가 있었던 1578년 『예기』 「옥조」편에 기반하고 구준의 설을 참조하여 심의와 치포관을 직접 만들어 입어보았다는 사실에서 이미 엿볼 수 있다.

조호익은 『예기』대로 행하는 것이 禮의 뜻을 얻는 것이라고 여겼다. 고례의 본 뜻을 가장 잘 드러낸 경전이 『예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²²⁾ 이는 대림의 이불은

21) 『儀禮經傳通解』에 대해서는 鄭景姬, 1998 「朱子 禮學의 變化와 <儀禮經傳通解>」 『震檀學報』86 참조.

22) 李承妍, 1996 「조선조 『朱子家禮』연구를 위한 提言」 『韓國의 哲學』24에서는 고례를 곧

숨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는 항목을 고증하면서 주자가례와 『사마씨서의』에서는 대렴과 소렴을 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는데 이는 없는 자를 위해 간편함을 따른 것이라 지적하며 있는 자는 마땅히 『예기』등 고례의 내용대로 행해야 예의 본 뜻을 얻는 것이라는 『가례의절』의 내용을 인용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²³⁾

『가례고증』의 각 항목에서 『예기』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편명을 밝히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또한 많은 경우가 그냥 ‘禮’라고만 앞에 표시하고 있는 것도 『예기』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의례』의 내용을 인용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조호익은 曲禮首章圖 등을 저술하여 禮와 수양론과의 관계를 『예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博文을 마음을 다하고 性を 알아 철저히 이해하고 꿰뚫은 다음에 일컬을 수 있는 것으로, 約禮를 동작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禮에 맞지 않음이 없게 한 다음에 일컬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²⁴⁾ 그는 『예기』 「曲禮」 편 1장 처음에 나오는 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 4句를 다음과 같이 圖解하고 이것들을 수기치인의 큰 요체(修己治人之大要)로 보았다.

存養	靜時工夫	敬之存乎內
包心身	儼若思	易之存誠
毋不敬		安民哉
兼內外	安定辭	易之修辭
省察	動時工夫	敬之行乎外

이를 보면 「곡례」 첫 장의 4句는 敬의 실천체계로서 조호익도 이황과 마찬가지로 敬을 수양론의 중심에 놓고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이어 持敬工夫條目에서는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을 조심스럽게 마음을 보존하는 요체(操存之要)로, 九容(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

『의례』로 간주하여 ‘古禮에로의 복귀’를 ‘儀禮에로의 복귀’로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다. 대체로 이이학파의 경우는 이러한 설명들이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으나 『예기』나 『주례』를 상대적으로 중시한 이황학파나 근기납인학파의 경우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23) 『家禮考證』 권6 「喪禮」 衾用有綿者
喪大記小斂大夫士皆用複衣複衾 大斂大夫士猶小斂也 註復有綿者 然則小斂用複亦有綿者 今家禮獨於大斂言用有綿者 皆互文也……然君子不以天下儉其親 有力者自當如禮 大斂斂數用縱一橫五 而斂之於床 斂訖舉以入棺 別用衣塞其空處 而以衾之有綿者裹之 斯得禮意矣 若夫無力者不得已如家禮只一小斂亦可

24) 『芝山集』 권2 「答鄭清允」
盡心知性融會貫通 然後方可謂之博 動容周旋無不中禮 然後方可謂之約 博文約禮之功 夫豈易易哉

25) 조호익의 수양론에 대해서는 금장태, 1996 앞의 글 164-167쪽 참조.

容靜, 頭容直, 氣容肅, 立容德, 色容莊)을 본성을 보존하고 기르며 성찰하는 공부(存養省察工夫)로 들고 延平 李侗의 시를 인용하여 사물을 대하는 요체(待物之要)를 설명하였다. 즉 禮가 敬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강조됐던 것이다.

『예기』를 중시하는 것은 영남 이황학과 예학의 전통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이 사후에도 주자가례와 『의례』를 중시했던 이이학과와는 달리 이황학과는 이황 사후에 주자가례에 기반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예기』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같은 가례주석서라고 해도 이덕홍의 『가례주해』, 김룡의 『가례강록』, 안공의 『가례부채』등과 같이 체제나 내용에서 모두 주자가례를 충실히 따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김성일의 『상례고증』과 유성룡의 『상례고증』처럼 체제에서는 주자가례를 따르면서도 내용에서는 『예기』를 중시하는 경우가 나타났다.²⁶⁾ 『예기』 중시 경향은 뒤에 정경세의 『思問錄』처럼 아예 예기주석서를 저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²⁷⁾

조호익의 『가례고증』은 이 두 가지 경향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체제는 주자가례를 따르면서 내용에서는 『예기』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김성일과 유성룡의 『상례고증』처럼 각 항목의 고증을 『예기』의 내용만으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조호익의 예학은 이황 사후 이황학파의 예학이 분화되어 갈 때 『예기』를 중시하는 전통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家禮儀節』의 강조

조호익이 주자가례를 고증하면서 『예기』와 함께 주로 참조한 또하나의 예서가 『가례의절』이었다. 『가례의절』은 명의 성리학자였던 구준(1419~1495)이 저술한 총 8권 4책으로 이루어진 가례주석서로 주자가례의 羽翼書로서 평가받았다.

구준이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주자가례가 예문의 내용은 심오하지만 의례는 쉽게 행할 수 없어 주자가례의 본문과 주에서 儀節을 간략히 취하여 알기 쉬운 말로 서술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²⁸⁾ 말하자면 주자가례의 실용성을 보완하여 사람들이 주자가례를 더 많이

26) 高英津, 1991 「16세기 후반 喪祭禮書의 發展과 그 意義」, 『奎章閣』14

27) 정경세의 예학에 대해서는 고영진, 1992 「17세기 전반 남인학자의 사상 -정경세·김응조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8과 劉權鐘, 1996 「愚伏의 禮學思想」, 『愚伏鄭經世先生研究』 대학사 참조. 유권종의 글에서는 정경세의 『思問錄』禮記篇이 당시의 예학을 본격적인 경학의 차원으로 선도하는 것으로서 학문적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였다.

28) 『家禮儀節』序

及出而北仕於中朝然後 知世之行是禮者蓋亦鮮焉 詢其所以不行之故 咸曰禮文深奧而其事未易以行也 是以不揆愚陋 竊取文公家禮本註 約爲儀節 而易以淺近之言 使人易曉而可行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가례의절』의 항목들은 주자가례의 대·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는 대부분 ‘儀節’, ‘祝文’, ‘書式’ 등의 세부 항목들이 있어 관련 의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들을 수록하였다. 또한 마지막 8권에서는 가례잡의, 가례부록이라 해서 의례를 행하는 데 필요하지만 주자가례에는 없는 내용들을 例文까지 곁들여 실고 있다.²⁹⁾

그러나 『가례의절』이 실용적인 성격만 가진 것은 아니다. 구준은 주자가례가 주자의 미완성의 저서라는 양복의 견해와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복이 주자가례를 보완한 楊復本이 주자의 본의를 왜곡시킨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이것이 『가례의절』을 저술한 또하나의 동기였던 것이다.³⁰⁾

실제로 구준은 『가례의절』의 적지 않은 항목에서 주자가례의 내용을 옮겨 실은 다음 여러 경전과 예서를 참조하여 보완하고 ‘濬按’ 또는 그냥 ‘按’ 이라고 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³¹⁾ 아울러 통례고증, 관례고증, 혼례고증, 상례고증, 제례고증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학문적 고찰을 하고 있다. 조호익이 『가례고증』을 저술하면서 참조한 것은 주로 이 부분이었다.

『가례의절』은 조선사회에는 이미 1518년에 들어와 간행되어 학자들이 주자가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16세기 후반부터 예서에서 인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책이 본격적으로 인용된 것은 이이학파의 경우는 『가례집람』이었으며 이황학파의 경우는 바로 『가례고증』이었다. 특히 『가례고증』에서 그 비중이 더

29) 『家禮儀節』의 전체 체제는 다음과 같다.

- 1책 권1: 家禮儀節序, 引用書目, 文公家禮序
通禮(祠堂, 通禮餘註, 通禮考證, 婦人拜考證, 深衣制度, 深衣考證, 溫公居家雜儀, 通禮圖, 宗法考證)
- 권2: 冠禮(冠, 笄, 冠禮餘註, 冠禮考證)
- 2책 권3: 昏禮(議昏, 納采, 納幣, 親迎, 婦見舅姑, 廟見, 壻見婦之父母, 昏禮餘註, 昏禮考證)
- 권4: 喪禮(初終, 沐浴 襲 奠 爲位 飯含, 靈座 魂帛 銘旌, 小斂, 大斂, 喪禮考證, 成服, 喪服制度, 喪服考證)
- 3책 권5: 喪禮(朝夕哭奠 上食, 弔 奠 膊, 聞喪 奔喪, 喪禮考證, 治葬, 遷柩 朝祖 奠 膊 陳器祖奠, 遺奠, 發引, 及墓 下棺 祠后土 題木主 成墳, 喪禮考證, 反哭, 喪禮餘註)
- 권6: 喪禮(虞祭, 卒哭, 祔, 小祥, 大祥, 禫, 家禮餘註, 喪禮考證, 改葬)
- 4책 권7: 祭禮(四時祭, 初祖, 禴, 忌日, 墓祭, 祭禮考證)
- 권8: 家禮雜儀(司馬氏居家雜儀, 冠禮雜儀, 婚禮雜儀, 居喪雜儀, 祭祀雜儀, 居鄉雜儀) 家禮附錄(通禮 家書, 冠禮 字辭 字說, 昏禮 聘定啓, 喪禮 書疏 墓志 祭文, 祭禮 書簡 祝告)

30) 李承妍, 1992 『조선조에 있어서 주자가례의 '절대성'과 그 '변용'의 논리』 『韓國의 哲學』20 6-7쪽

31) 『가례의절』 앞 부분에 수록한 인용서목을 보면 三禮와 『의례경전통해』를 비롯해 39종에 이르고 있다.

하였다.

조호익이 『가례의절』을 중시한 것은 이 책이 주자가례의 미비한 점과 의심스러운 점을 『예기』와 『의례』등 고례에 입각해서 제일 잘 보완하고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실제로 『가례의절』에서 가례도의 오류를 수정하고 고증항목에서 학문적 고찰을 하면서 구준이 근거로 삼았던 것은 주로 『예기』와 『의례』등이었다. 그런데 『가례고증』에서도 이 부분을 자주 인용했던 것이다.³²⁾

『가례의절』을 중시한 또다른 이유는 이 책의 내용이 고례에 입각하면서도 매우 세세하고 풍부하다는 것이었다. 임란 직후 예서들을 참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례들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도 그는 『가례의절』이 매우 상세하니 그 책을 참조할 것을 권유하였다.³³⁾

이 점은 심의제도를 설명하는 데서도 잘 드러난다. 심의는 고대의 服制로 제후와 大夫·士가 저녁에 입었으며 서인은 吉服으로 입던 옷이었다. 또한 養老禮나 관례 등 四禮를 거행하는 경우에도 입었다. 이 옷은 성인의 예법이 반영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매우 중시되었지만 관련 기록이 부족하여 그 실체에 대해 후대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았다. 특히 續衽鉤邊에 대한 해석이 그러했다.³⁴⁾

주자는 처음에 이것을 曲裾之制로 보았으나 만년에 그 설을 버리고 새로 고쳤다. 문제는 주자가 만년에 고친 심의제도가 지금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뒤에 그의 문인인 양복과 채연이 스승의 설을 복원시키려고 노력하였는데 『예기』본문에 대한 疏家의 설이 틀리며 정현의 註가 주자의 만년의 설과 거의 같다고 보았다. 즉 속임구변을 치마의 옆을 연결시켜 앞뒤 폭의 꿰매미 없는 것으로, 좌우를 서로 걸은 것을 구변으로 보고 따로 한 폭을 갈구리처럼 재단하여 치마 옆을 꿰맨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던 것이다.³⁵⁾

속임구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조선 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김장생은 치마의 양 옆을 연결시켜 주는 것을 속임, 속임이 치마의 양 옆에 있으므로 구변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해는 주자가례에 나와있는 채연의 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³⁶⁾

32) 『家禮考證』 권2 「深衣制度」 某……繫履者也
丘氏曰 家禮深衣用白 而履用黑……今考儀禮等書 別爲圖如上 今按丘氏此圖比舊圖爲詳 茲載于此俾得參考

『家禮考證』 권6 「喪禮」 左衽不紐

丘氏儀節曰 家禮卷首圖有散垂至成服乃絞之說 而家禮無有所謂未成服而先具要經者 故據禮補入云云

33) 『芝山集』 권2 「答鄭君雙問目」

(問) 弔禮攷之於家禮 則是朱子從俗之制 而今當以古禮行之者 乃朱子晚年教也 亂後無經籍可考 不知古禮之式 何如也 今之法家或以開元禮用之 故方以此禮拜賓矣 不審何如

(答) 丘瓊山儀節亦甚詳

34) 深衣制度에 대해서 고영진, 1995 『조선중기 예학사상사』 한길사 275-289쪽 참조.

35) 『家禮』2 「深衣制度」(『性理大全書』 권19)

정구는 채연과 양복의 설대로 실제 심의를 만들어보니 모양이 이상해 사람들이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의심했다면서 주자가례의 설명이 반드시 古制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백운 주씨와 엄릉 방씨의 설에 따라 포 1폭을 비스듬히 잘라 옷웃과 치마 안팎의 깃 부분을 덧붙여 꿰맨 부분을 속임구변으로 보았다.³⁷⁾

한편 한백겸은 『예기』의 주소와 주자가례에 있는 채연과 양복의 설이 모두 주자의 만년 정론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보고 고례와 육경 등을 근거로 자신의 독창적인 설을 주장하였다. 즉 옷 앞 부분의 목에서부터 치마 끝까지 이어지는 여닫는 부분의 깃 천체를 속임구변으로 이해하였다.³⁸⁾

조호익은 심의제도에 대해 구준의 설이 매우 상세하고 補註 또한 밝히는 바가 있으니 수록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³⁹⁾ 그에 따라 각 항목마다 구준의 설을 먼저 실고 이어 다른 학자들의 설이나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였다. 구준은 심의제도에서 주자가례를 본받고 附註의 설을 함께 참조하며 고례와 절충하고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여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⁴⁰⁾

또한 조호익은 주자가례의 심의를 만드는 법이 그 뜻이 附註의 설에서 보이나 역시 미진하고, 궁벽진 시골에서 여러 경전을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왕의 제도의 중함과 그 뜻의 깊음을 알지 못해 古服을 입는 것을 늦추는 것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옛것을 흠모하고 흥기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명분 아래 『예기』의 관련 全文을 수록하고 鄭玄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설을 덧붙였다.⁴¹⁾

속임구변에 대해서는 같은 항목을 세 개나 설정하고 구준·양복 등 여러 학자들의 설을 인용하여 세밀한 고증을 하고 있다. 구준은 『가례의절』深衣考證의 속임구변 항목에서 겨드랑이 아래 앞뒤가 서로 만나는 곳을 모두 꿰매(合縫) 연결시켜 열리지 않게 하는 것을 속임으로, 그 끝을 다시 꿰매어(覆縫) 갈구리침 같이 한 것을 구변으로 보았다.⁴²⁾

36) 『家禮輯覽』 「深衣制度」(『沙溪全書』 권25)

37) 『寒岡先生文集』 권9 「深衣製造法」

38) 『久菴遺稿』 上 「續衽鉤邊」

39) 『家禮考證』 권2 今以……已有其文

今按丘氏之說甚詳 且復淺近易曉 補註亦或有發明處 故並載于左以備參考

40) 『家禮儀節』 권1 深衣制度

(按) 古者衣裳異制惟深衣之制 衣與裳連而不殊 自天子至於庶人之通服也……今一祖家禮 兼用附註之說 而折衷於古禮 且文以淺近之言 使覽者易曉云

41) 『家禮考證』 권2 「深衣制度」 黑緣……此緣之廣

其服之貴重如此 家禮所載獨裁制之法 而其義或見於附註之說 然亦未之盡 窮鄉晚學目未及諸經者 不知先王所以爲制之重 取義之深 或不免指以爲一儒緩之古服 故今特載本經全文 以爲慕古興起之地 因附諸儒所見之異同云

42) 『家禮儀節』 권1 「深衣制度」 裁衣法

當衣之兩傍 自腋下至齊 前後相交處 皆合縫之 使連續不開 是謂續衽 又覆縫其邊如俗 所謂鉤針者 是謂鉤邊

이에 대해 조호익은 구준의 이 설이 家禮圖에 수록되어 있는 양복의 설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가례도의 내용과 주자가례 附註의 내용이 다르고 그와는 또다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 각각의 견해를 비교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⁴³⁾

그 결과 양복의 설은 정현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자의 설을 밝혔지만 合縫을 속임으로, 覆縫을 구변으로 보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으며 특히 구변에 대한 것은 주자의 설명도 미진하다고 보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兩衿, 즉 옷의 양자락이 나뉘어 열려지지기 때문에 그 양입 끝의 비스듬히 재단한 곳에 반드시 굴곡되어 꿰맨 곳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구변이라는 것이다.⁴⁴⁾

아울러 구준의 12幅說이 매우 新奇하여 이전 학자들의 설과는 다른 점이 있다. 『가례의절』의 심의고증과 深衣圖에 있는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이어 구준이 새로 작성한 新擬深衣圖와 緇冠新圖, 履新圖 등을 덧붙여 실었다. 백은 주씨의 설과 『의례』등을 참조해서 만든 이 그림들은 주자가례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결국 조호익의 심의설은 전체적으로는 구준의 설에 바탕을 두면서도 부분적으로 구준의 설이 주자의 定論과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경전과 여러 학자의 설을 참조하여 보완했음을 알 수 있다. 심의도 자체는 감장생과 정구의 심의도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정구는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친한 관계였지만 예에 관해 직접 교류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두 사람이 서로의 예학에 대해 논의하고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이해일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으로 조호익의 예학사상을 예학의 형성과정과 『가례고증』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호익은 집안의 변례를 당하여 1570년대부터 예학에 관심을 가졌으며 1580년대 후반 주자가례의 고증작업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고 20여 년간의 학문적인 축적과정을 거쳐 1609년 『가례고증』을 저술하였다.

『가례고증』은 주자가례의 내용을 항목 별로 정리하여 주석을 붙인 것으로서 본

43) 『家禮考證』 권2 「深衣制度」 續衿鉤邊

丘氏曰 當衣之兩傍……按丘氏此說本衣圖楊氏之說 然衣圖說與附註不同 豈楊氏後別有所見歟 建安何氏曰 裳十二幅外……按此與諸說不同以備一說

44) 『家禮考證』 권2 「深衣制度」 續衿鉤邊

楊氏之說 深得鄭註之意 而發明朱子之說爲多 但又以合縫爲續衿 覆縫爲鉤邊者 何也 此不可曉…愚嘗反覆思之 續衿之義既如鄭註 而鉤邊之說亦猶可疑 朱子以爲左右交鉤亦似未盡 妄意以爲既兩衿分開 則兩衿之邊斜裁處 必有反屈之縫 疑鉤邊二字或指此也 或謂鉤邊則是矣

격적인 가례주석서로서의 사례서였다. 이 책은 조호익이 주자가례의 미진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주자가례를 주자의 만년 정설에 맞게 새롭게 복원시키려는 목적에서 저술한 것이다.

이 고증과 주석작업을 하면서 그는 중국의 경전·예서와 중국 학자들의 학설을 광범위하게 인용하였다. 또한 여러 학설 간에 견해의 차이가 나는 경우 '按'이라고 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작업의 완벽성을 추구하였다. 여기서 그는 時俗보다는 古禮를 중시하였으며 주자의 本意를 강조하였다.

조호익이 주자가례를 새롭게 복원시키면서 주로 참조한 것은 『예기』와 『가례의절』이었다. 그는 강동에 귀양가 있을 때 『예기』 「옥조」편에 기반하고 구준의 설을 참조하여 심의와 치포관을 직접 만들어 입어보기도 했다.

조호익은 『예기』대로 행하는 것이 禮의 뜻을 얻는 것이라 여기고 『예기』가 고례의 본 뜻을 가장 잘 드러낸 경전이라고 보았다. 또한 예와 수양론과의 관계를 『예기』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이황학과 예학이 『예기』를 중시하는 전통을 이룩해가는 데 디딤돌이 되기도 하였다.

『가례의절』을 중시했던 것은 이 책이 주자가례의 미비한 점과 의심스러운 점을 고례에 입각해서 잘 보완하였으며 그 내용이 세세하고 풍부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실제로 심의제도를 비롯한 많은 부분에서 『가례의절』의 내용을 고증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의 예학적 입장은 주자가례가 주자의 만년의 생각과 다름 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주자가례를 보완하는 가례주석서를 만드는 데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주자가례를 복원하는 방법은 김장생 등의 이이학과와는 달랐으며 같은 이황학과와 김성일·유성룡과도 달랐다.

즉 김장생이 조선 학자들의 설을 함께 인용한 데 반하여 조호익은 중국 학자들의 설만을 참조하였으며, 김성일·유성룡이 주자가례의 체제를 빌어 『예기』의 내용을 정리한 성격이 큰 반면 그는 주자가례를 『예기』와 『가례의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보완했던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호익의 예학은 시속보다는 고례를 강조하고 주자가례에 기반하면서도 『예기』와 『가례의절』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이는 주자가례를 중시하고 시속에 호의적이었던 스승 이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보다는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이다.

또한 『의례경전통해』를 중시했던 정구, 『예기』에 치우쳤던 김성일·유성룡과도 다른 모습이었다. 굳이 이야기 하자면 이황학과 내부의 주자가례 중시 경향과 『예기』중시 경향의 중간에 위치한다고나 할까.

어쨌든 『가례고증』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수준에서 이이학과 김장생의 『가례집람』에 비견되는 예서였다. 물론 조호익이 다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뒤에 문인들이 보완·정리한 부분은 소략함을 면치 못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러한 평가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결국 조선 중기 예학사에서 그의 예학은 송익필·김장생과 함께 본격적인 가례 주석서로서의 四禮書의 문을 열었으며, 영남 이황학과 내부에서는 정구와 함께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하여 17세기 초반 조선사회에는 이이계통의 김장생의 예학, 이황계통의 申滉·安珮·曹好益의 예학, 서경덕계통의 한백겸의 예학, 이황·조식계통의 정구의 예학, 학파와의 관련이 긴밀하지 않으면서 중앙관료계통인 이항복·김상헌의 예학 등 크게 5개의 예학 조류가 서로 차이점을 가지면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표 1〉 『가례고증』의 항목

<p>序</p>	<p>儀章度數 常體 折衷 貧窶 從先進 謹終追遠 童行 易簣 所定家鄉邦國王朝禮 儀禮 司馬氏 程氏 高氏 橫渠 韓魏公 愛禮存羊</p>
<p>祠堂</p>	<p>報本反始 尊祖敬宗 古之廟制不見於經 文潞公 西京 影堂 古命士得立家廟 寢廟正廟 無貴賤.....有豐殺疎數不同 乃是奧處也 嘗欲立一家廟.....外用簾子 位牌 或堂或廳 京師 杜佑 祭時不可用影 君子將營宮室.....正寢之東 東曰作階 香爐香盒 及前圖 程子曰管攝天下人心.....立宗子法 又曰今無宗子.....朝廷之勢自尊 古者子弟.....不知本也 宗子法廢.....恩亦薄 張子曰.....豈有不固 神道尚右 陸農師禮象圖 漢時高祖廟 顧成廟 至東漢明帝.....祔於光武廟 太廟 別於正適故稱別子也 又別立宗也 魯季友.....不立大宗也 又有大宗.....不立小宗也 也有有宗.....不立大宗也 世族家 嫂婦 各以昭穆論 旁親之無後者以其班祔 曾祖兄弟無主者亦不祭 遇大時節請祖先祭于堂.....大小分排 典賣 倚 卓 瞻禮 俠拜 正 至 朔 望 設新果.....卓上 茶 托 盞盤 東茅 聚沙 姑嫂姊 茶筵 湯瓶 點茶 冬至則祭始祖畢 望日不設酒 舅沒則.....於祭 支子不祭 幘頭 黑履.....白絢總純綦 帶 靴 笏 進士 欄衫 處士 皂衫 帽子 衫 涼衫 假髻 大衣長裙 冠子 背子 先生云.....更在斟酌也 除夕 裝香 祠版 酌茶酒 月望不設食 唱喏 有時新.....于影堂 忌日.....薦酒食如月朔 禮君子.....忌日之謂也 舊儀.....受甲 寒食 重午 中元 重陽 食如角黍.....所尚者 七月十五日.....設素饌 張南軒 且古人.....不敢以燕 據經.....事亡如事存之意也 告朔 孝子某 敢 故 封諡 府君 某封 止告所贈之龜 刷子 因事特贈.....以叙其意 主人生嫡長子.....如上儀 某之婦某氏 主婦抱于.....再拜 復位 凡言祝版.....焚之 元孫 曾孫 行第 稱號 某氏夫人 最尊者為主 焚黃 張魏公 告于家廟.....告墓也 或有.....遺書 歲率其子孫一祭 朱子曰而今祭四代已爲僭 楊氏復曰.....以奉墓祭</p>
<p>深衣制度</p>	<p>此章.....冠禮之後 今以.....已有其文 近於服妖 白細布 度用指尺 中指中節爲寸 周尺 省尺 說文 周制.....爲法 直領衫 但不裁破腋下 用布二幅.....屬裳三幅 用布六幅.....四尺四寸 用布二幅.....一尺二寸 袂之長短.....不以幅爲拘 方領.....之會自方 曲裾 續衽鉤邊 左右交鉤.....鉤邊 黃氏.....相對爲衽 孔氏.....相對爲衽 皇氏.....一邊所有 袷者交領也 踝足跟也 具父母.....以青 今用黑縗.....簡易也 黑緣.....此緣之廣 深衣三祛 縫齊倍要 衽當旁 袂可以回肘 袷二寸 緣廣寸半 古者深衣盖有制度以應規矩繩權衡 短母見膚 長母被土 續衽鉤邊 要縫半下 袷之高下可以運肘 袂之長短反屈之及肘 帶下母厭脾上母厭脅當無骨者 制有十二幅以應十二月 袂圓以應規 曲袷如矩應方 負繩及踝以應直 下齊如權衡以應平 故規者行舉手以爲容 負繩抱方者以直其政方其義也 故易曰坤六二之動直以方也 下齊如權衡者以安志而平心也 五法已施故聖人服之 故規矩取其無.....先王貴之 故可以爲文.....且弗費善衣之次也 具父母大父母.....如孤子衣純以素 純袂緣純邊廣各寸半 衽當旁 方領 續衽鉤邊 大帶 緇冠 幅巾 劉氏.....穿貫者也 總謂.....之總 純者飾也 綦.....繫履者也</p>

<p>司馬氏 居家 雜儀</p>	<p>此章本在.....之後 謹守禮法 家衆 謂使之.....之類 易曰.....之謂也 俸祿 不敢....私與 內則 子婦.....不敢私與 婦或賜之.....藏之以待乏 鄭康成 待舅 姑.....不 見許也 又曰.....賜而後與之 夫人子之身.....身也 賈誼 借父.....許語 天欲明.....具冠帶 帽子衫帶冠子背子 味爽 丈夫唱喏婦人道萬福 其或不安節 此即禮之晨省也 供藥物 檢數 點心 易曰在中饋 詩云惟酒食是議 親執刀匕 婦請所欲 席地而坐 丈夫唱喏.....安置 禮之昏定也 不敢涕唾 凡父母有過.....復諫 不悅與其得罪.....熟諫 父母怒.....起敬起孝 是說也.....論語矣 凡爲人子弟者.....父兄宗族 出必告反必面 不敢.....正廳 坐於書院 升降不敢由東階.....當廳 倚門倚閭 告行飲至 親調嘗.....供之 父母有疾.....疾已復初 顏氏家訓 父母有疾.....豈可傲忽也 凡子事父母.....而況於人乎 晉武.....齊王攸 唐高宗.....長孫無忌 凡子事父母.....以其飲食忠養之 幼事長.....皆做此 嘖討 堂室 庭除 席篋 毳 褥 衾 帳 幄 凡子婦.....其犯禮也 子甚宜其妻.....沒身不衰 凡爲宮室必辨內外深宮固門 內外不共井.....女治內事 男子晝無故.....不窺中門 男子夜行.....擁蔽其面 蓋頭 面帽 縹 鈴下 蒼頭 尊長 經再宿以上.....從尊長之命 冬至 臨時從宜 丈夫處左.....家長 畢長兄.....以次拜 訖各就列.....同列共受之 受拜訖先退後背.....之儀 寒暄.....起居 晨夜.....安置 蒼尊長.....避煩也 立而扶之 擲策 節序 上壽 盛服 先再拜.....與卑幼皆再拜 家長命諸卑幼坐.....還復就坐 必擇良家.....亦類之 子能食飼之.....詞禁之 古有胎教 舉以禮 孔子.....如自然 嬰孩 歐 殘忍 悖逆 杜漸 六歲.....誦之 七歲.....食無時 八歲出入.....中門 九歲.....義理 女子.....大意 古之賢女.....非所宜也 十歲男子出就外傅.....文辭 仁義禮智信 孟 荀 楊子 精要 禮記 學記大學中庸樂記 異端.....其志 觀書皆通始可學文辭 女子.....及女工之大者 女工.....不必習也 未冠笄者.....酒食 若既冠笄.....不 得復言童幼矣 凡內外僕妾.....各從其事以供百役 灑掃 庭 中庭 堂 拂 牀 疊 間 浣 紉 煖 雍陸 杖 忠信可任 能幹家事 背 資 間 骨肉 放蕩</p>
<p>冠禮</p>	<p>冠 大功未葬亦不可行 古禮筮日 戒賓 古禮筮賓 加冠 吾子 以病 宿貧 莅之 帟幕 望 土冠禮 設洗直.....水在帔東 盥洗 分其中央.....西者爲賓塔 東北爲房 冠 義 公服.....大帶履 櫛鬢掠 東領北上 冠 巾 帕 一人守之 長子.....南向 僮 紉 四襜衫 勒帛采屐 賓自擇.....贊冠者 入門.....至塔 筮于東序少北西面 吉月.....景福 乘輿.....成德 壽考.....景福 帽子.....繫鞋 吉月.....胡福 幘頭.....納靴 乃醮 長子.....少西南向 旨酒.....不忘 賓復位東向答拜 進席前.....跪啐酒 古者用醴或用 酒 醴則.....三醮 今私家.....代之 賓字冠者 賓或別作.....之意 出就次 見於母 拜之 見於兄弟 今則難行 一獻者.....禮成 酬賓 十端 儻皮 贊者皆與 介賓之輔.....其次爲介 歸賓俎 笄 如上儀 親姻 屬 黨 冠笄 雙弁 魯襄公十二而冠</p>

昏禮	<p>昏禮 (議昏)男三十而娶.....而嫁 今令文 今爲此說 大功未葬主昏 但宗子自昏.....之長爲主 昏姻 先察其壻與婦之性行 指腹爲昏 先祖太尉 納采 夙興奉以告祠堂 乃使子弟爲使者 主人出見使者 隨奉書.....祠堂 主人出迎使者升堂 (納幣)問名 納吉 幣用色繒.....多不踰十 今人...之屬 但不告廟 吾子順先典.....使者避之 某既申受命矣 (親迎)伊川之說 帳幔 文中子 是乃隴僮.....之法 至有不舉其女者 勺 匏 初昏 命服 墨車 執馮 冠帶 儀禮.....之文 左傳.....莊共之廟 左氏.....後祖之說 從古爲正 布几筵告廟而來之說 恐所謂後祖者.....失此禮耳 往迎.....宗事 勉師.....有常 以燭前導 姆相之 敬之戒之 夙夜.....之命 整冠斂帔 無違爾閨門之禮 諸母 壻入奠馮 主人.....揖讓以入 凡贊用生膺.....交絡之 無則刻木爲之 壻舉轎簾.....不足與爲禮也 壻至家...導以入 壻盥于南.....壻從者沃之 女子與丈夫.....俠拜 祭酒 舉殽 不祭無殽 壻從者...壻之餘 壻在西東面.....且從俗 儀禮疏 香謂牢瓢 香謂牢瓢.....合香而酌 昏義 共牢而食 合香而酌 所以合體.....以親之也 壻脫服.....壻從者受之 古詩.....爲夫婦 李廣.....與匈奴戰 今世俗.....結髮之禮 謬誤.....勿用可也 男賓於外廳.....中堂 曾子問.....思嗣親也 今俗.....非禮 舅姑.....東西相向 舅撫之.....姑舉以授侍者 舅姑禮之 小卽 小姑 如舅姑禮 若冢婦.....舅姑 洗盞斟酒.....婦降拜 婦就餽姑之餘 舅姑饗之 古者三月而廟見.....改用三日 壻往見婦之父母 拜卽跪而扶之 婦母闔門左扉.....壻拜于門外 婦女相見如上儀 親迎之夕.....未見舅姑故也 程子曰昏禮.....幽陰之義 嚴肅其事不用樂也 昏禮不賀人之序也 質明</p>
喪禮	<p>(初終)凡疾.....正寢 男子不絕.....男子之手 孫宣公 廢牀寢於地註 屬纊以俟氣絕 侍者一人.....右執要 自前榮升屋.....某人復 畢捲衣降覆尸上 哭辯 呼某人者從生時之號 高氏曰...復之餘意歟 立喪主 奔喪曰.....從父昆弟之喪也 雜記曰.....里尹主之 喪大記.....無無主 若子孫有喪.....祖父拜賓 司書 司貨 或吏僕爲之 妻子婦妾.....扱上衽徒跣 爲人後者.....皆不被髮徒跣 諸子三日不食.....再不食 親戚隣里.....少倉可也 珠翠 油杉爲上.....土杉爲下 虛簷高足 瀝青 秫米灰 七星板 孔子葬鯉有棺而無槨 還葬 雜書.....琥珀 少蚌粉 蔡氏兄弟 彭止堂作訓蒙 江南.....蟻房 古者國君.....歲一漆之 自爲壽器 豫凶事 前人葬墓...其厚尺餘 訃 僚友 (沐浴 襲 奠 爲位 飯含)執事者以幃障臥內 施簣.....設席枕 南首 掘坎于屏處潔地 以卓子陳于堂前.....西領南上 幅巾 充耳二.....塞耳者也 幘目.....覆面者也 握手.....裹手者也 深衣大帶履 袍 襖 汗衫 勒帛裹肚 士喪.....三稱 三稱者.....緣衣 皮弁服 祿衣 設冒囊之 冒輅尸者.....齊手 君錦冒黼.....殺三尺 古者人死不冠.....結於項中 磊嵬 僕頭帽 暖帽 衫 腰帶 錢三實于小箱 米二升.....實于盥 侍者以湯入 主人以下皆出帷外北面...拭以巾 剪爪 去病時衣及復衣 執事者.....當肩巾之 復者降襖齒綴足 開元禮 正尸 主人坐於牀東奠北.....無服在後 若內喪.....北向東上 籍藁枕塊 主人哭盡哀.....腰之右 盥手.....以入 侍者一人.....由足而西 以匙抄米.....亦如之 主人襲所袒衣 束以絞紵 韜以衾冒 大夫五稱.....公九稱 小斂.....十九稱 大斂士三十稱.....君百稱 襚</p>

<p>喪禮</p>	<p>子羔.....五稱 孔子之喪.....加朝服一 雜記.....九稱 人死斯惡之矣 衿 古人遺衣裳.....歲於廟中 親者禭 庶兄弟禭 槨 帕 結白絹爲塊帛 頰 古者鑿木爲重以主其神 令式 用束帛依神.....亦古禮之遺意也 輜駟 皆相 三禮圖 無主 銘旌 司馬溫公.....其制如傘架 七七日 百日 設道場 修建塔廟 無邊波吒 李舟 主人未成服而來哭者當服深衣 主人相向哭盡哀.....無辭 (小斂 袒 括髮 免 髻 奠 代哭)食用復者 絞視者三縱者一.....或綵 凡斂欲方.....惟祭服不倒 凡鋪斂衣.....後布散衣也 可以使人之勿惡 遽納之於棺.....皆廢矣 楊氏復曰.....令可結也 潔滌盆新拭巾 括髮.....別室 設小斂牀.....掩首及足也 衣或顛.....不倒 侍者盥水.....小斂牀上 先去枕.....兩肩空處 又卷衣.....餘衣掩尸 左衽不紐 主人主婦憑尸哭擗 凡子於父母憑之.....於昆弟執之 凡憑尸父母先妻子後 男子斬衰.....婦人髻于別室 去冠梳 入門詣柩前.....哭盡哀 乃就東方.....如始喪之儀 詣殯東面.....如小斂之儀 明日後日朝夕哭猶袒括髮 尊長坐卑幼立 卑幼者皆再拜 乃代哭不絕聲 禮曰.....以三日爲之禮也 今貧者.....無傷也 陰陽拘忌 衾用有綿者 高氏曰.....堅之急也 衾二一覆之一藉之 楊氏復曰.....橫者五 兩冕 卑幼則於別室 侍者先置.....四外 周人殯于西.....少西而已 今世俗.....僧舍 侍者.....結絞 舉尸納于棺中 實生時所落.....于棺角 謹勿以.....啓盜賊心 收衾.....次掩右 主人主婦.....盡哀 旣大斂則累壘塗之 擇朴陋之室.....喪次 寢苫枕塊 不脫經帶 不與人坐焉 齊衰寢席 大功.....復寢 婦人.....別室</p>
<p>喪禮 (사후편집)</p>	<p>成服 五服 朝衣 相弔如儀 生與來日死與往日 絞帶 婦人.....大袖長裙蓋頭 適搏四寸 喪服斬衰.....女子子子 三构 又杖屨一節.....向外編之也 魯莊公.....服大功 小功 纒麻 劉氏.....用不得 乘撲馬.....素輻 凡重喪.....終其餘日 唐前上元元年 朝奠.....夕奠 入就靈座 婦之喪.....卒哭同 弔 橫烏 醖酒.....留謁 拜賓 高氏曰.....孝子齊 聞喪奔喪 日行.....辟害也 入門.....就位哭 與家.....如初 喪側無子孫 齊衰.....爲位而哭 望鄉而哭 爲人所拍 按古者.....可也 后土 世俗.....不見而已 下帳 柳車 扎 帷幌 以木爲筐.....准格 發引 軼軸 口哺.....祖奠 加楔 商祝 布磚 防墓 豐碑 其反如疑 饋食.....哭于堂 有弔者拜之如初 虞祭 主人之左 黍盛醴齊 三祭於茅束上 玄酒 成事 祔 祖妣二人.....以親者 祔于王父.....不配 適于某考.....祔事于先考 練服爲冠 髻布 彈琴而不成聲 縞冠素紕 檀弓曰始死.....反而息 雜記.....三年憂 喪服.....祭焉 檀弓曰大功.....可也 疏衰 百官備.....不言而事行者 扶而起.....事行者 扶而起.....面垢而已 慰人父母亡疏 慰人祖父母亡狀</p>
<p>祭禮 (사후편집)</p>	<p>有牲曰祭 春薦.....以膋 譏此歲事 致齊於內.....不如葷 月祭享嘗之別 古人宗子.....宗之正也 軒(米苾)糕 鬱鬯.....違于墻屋 楊氏復.....失之矣 侑食 受胙 告利成 歸胙 杆 親割毛血.....右胙 匱孟 肉滫.....綱羹 四時之祿.....有不及處 墓祭 滅裂 鮓</p>

〈표 2〉 『가례고증』의 인용학자와 인용서

항목	인용학자	인용서
序	朱子 陳淳 賈公彥 孔穎達 胡伯量 許氏	禮記 論語 儀禮經傳通解 續綱目集覽 伊川先生文集
祠堂	朱子 程頤 張載 丘濬 陳淳 賈公彥 鄭玄 鄭鏞 孔穎達 劉歆 孫毓 王得臣 葉適 陸佃 蔡淵 張拭 應氏 黃幹 胡伯量 許氏 何氏 李氏 徐氏 李滉	禮記 周禮 儀禮 司馬氏書儀 家禮儀節 尚書 爾雅 春秋 通典 論語 漢書 晉書 後漢書 唐書 說文解字
深衣制度	朱子 丘濬 陳淳 鄭玄 孔穎達 朱伯賢 楊復 吳草廬 吳興 皇侃 劉璋 方氏 王氏 何氏	禮記 周禮 司馬氏書儀 家禮儀節 爾雅 後漢書 性理大全
司馬氏 居家雜儀	朱子 丘濬 張載 周敦頤 鄭玄 陳淳 徐元瑞 孔穎達 劉焄孫 顏師古 陸佃 胡伯量 眞氏 呂氏 李氏 王氏 吳氏 方氏 夏氏 輔氏 熊氏	禮記 周禮 大戴禮 司馬氏書儀 尚書 詩經 春秋 爾雅 小學 漢書 唐書 晉書 說文解字 朱子增損呂氏鄉約
冠禮	孔子 朱子 丘濬 司馬光 陳淳 鄭玄 孔穎達	禮記 周禮 儀禮 家禮儀節 司馬氏書儀 春秋 孔子家語 說文解字
昏禮	孔子 朱子 程頤 鄭玄 孔穎達 顏師古 陸佃 蔡淵 皇侃 李孝述 方氏 何氏	禮記 周禮 儀禮 司馬氏書儀 家禮儀節 春秋 史記 孔子家語 說文解字 漢書 晉書 自警編 白虎通義 性理大全
喪禮	孔子 莊子 穀梁子 朱子 程頤 張載 丘濬 陳淳 賈公彥 孔穎達 顏師古 高閔 劉焄孫 楊復 陸佃 呂大臨 馬端臨 徐廣 胡伯量 方氏 吳氏 何氏 許氏	禮記 儀禮 周禮 司馬氏書儀 家禮儀節 論語 春秋 陳氏集說 開元禮 漢書 後漢書 唐書 山谷集
祭禮	朱子 鄭玄 葉適 李氏	禮記 論語 樂書 白虎通義 朱子大全

〈표 3〉 『가례고증』의 '按' 說

序	童行	설명.
祠堂	古之廟制不見於經	여러 설 소개. 주자는 孫毓의 설 지지.
	影堂	설명.
	寢廟正廟	여러 설 언급. 주자는 劉歆 이전의 諸儒의 설을 따른 것으로 봄. 陳淳의 설을 그림으로 소개.
	位牌	설명.
	京師	주자의 家廟五袞之圖 소개.
	香爐香盒	古禮가 아니더라도 통용된지 오래.
	及前圖	기존의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음. 현실에 맞게 고친 丘濬의 大宗小宗之圖를 소개.
	漢時高祖廟	설명.
	至東漢明帝.....祔於光武廟	설명.
	太廟	여러 설 언급. 주자는 鄭玄 설과 가까움. 후대에는 太祖와 小祖를 모신 곳을 모두 태묘라 함.
	魯季友.....不立大宗也	설명.
	典賣	설명.
	俠拜	설명.
	束茅	여러 설 소개. 우리나라 풍속에서 사용하는 것은 중국과 달라 진짜 茅가 아님.
	黑履.....白紵總純綦	여러 설 소개. 直領之服은 古制. 우리나라의 團領公服은 湖服인 上領之服에서 기인하지 않았다.
	帶	주자설 집중 소개. 현대는 士庶가 모두 착용하나 胯子는 귀천을 구분함.
	皂衫	주자의 설처럼 襴衫, 조삼은 모두 사대부의 常服으로 진사, 처사의 구별을 함. 후대 관례에서 보듯이 服의 輕重에 차이가 있었음.
	帽子	여러 설 소개.
	假髻	여러 설 소개.
	冠子	여러 설 소개.
背子	우리나라의 복제는 중국의 제도를 따랐으나 아직도 舊俗을 따르는 것이 많음. 계속 사신들이 가서 물어 고쳐온 것은 다행.	
祠堂時節陳設家衆叙立之圖	구준의 이 그림이 舊圖보다 상세해 실음.	

祠堂	舊儀.....受弔	溫公雜儀와 家禮가 틀린 곳이 다섯임.
	寒食	설명.
	重午	설명.
	故	설명
	復位	구준의 설과 기존의 설이 다름.
	某氏夫人	지금 사용하는 명칭이 고례와 다름. 왜 先賢의 설을 버리고 당시의 풍속을 따르는가.
	告于家廟.....告墓也	설명.
	或有.....遺書	사마광과 주자의 설 비교.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朱子曰而今祭四代已爲僭	4대봉사를 주장한 정자설 소개.
	楊氏復曰.....以奉墓祭	4대가 지난 신주의 처리 문제는 주자의 견해를 참조함.
深衣制度	今以.....已有其文	여러 설 소개. 구준의 설이 제일 상세. 補註도 역시 참고할 것이 있어서 같이 수록.
	周制....爲法	여러 설 소개. 진순의 설이 제일 가까움.
	用布二幅.....屬裳三幅	구준의 설은 白雲朱氏의 설을 따름. 지금 사람들은 평상복처럼 재단하는데 고제가 아님.
	用布六幅.....四尺四寸	보주의 설이 현실과 맞지 않음. 어디에 근거했는지 모르겠음.
	方領.....之會自方	보주의 내용으로 구준의 설 증명
	續衽鉤邊	구준의 설은 楊復의 설과 차이. 何氏의 설도 여러 학자들의 설과 다르니 수록함.
	黑緣.....此緣之廣	심이에 관한 가례의 설명이 미진하여 예기의 내용 전문을 싣고 제유의 설을 첨부함.
	衽當旁	정현의 주 설명.
	方領	정현의 설은 잘못. 주자가 고친 것이 채연의 설과 같음.
	續衽鉤邊	소임구변 4자는 衽當旁의 뜻을 해석하는 것. 양복의 설은 정현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자의 설을 밝힌 것. 정현과 주자의 설은 미진함. 자신의 견해를 첨가. 구준의 12幅說이 先儒의 설과는 달라 여기에 실음. 구준의 新擬深衣圖도 수록.
	縹冠	가례 本注와 구준의 설을 보면 舊圖가 잘못되었으므로 新圖를 실음.
	綦.....繫履者也	의례를 참조하여 새로 만든 구준의 履新圖를 수록.

司馬氏 居家雜儀	賈誼	설명.
	天欲明.....具冠帶	설명.
	親執刀匕	설명.
	席地而坐	설명.
	告行飲至	설명.
	父母有疾.....疾已復初	설명.
	晉武.....齊王攸	설명.
	唐高宗.....長孫無忌	설명.
	凡子婦.....其犯禮也	여러 설 소개. 사마광의 설도 이에 기반.
	凡爲宮室必辨內外深宮 固門	설명.
	男子晝無故.....不窺中門	설명.
	尊長	주자증손여씨향약에서 설명.
	經再宿以上.....從尊長之命	설명.
	丈夫處左.....家長	설명.
	家長命諸卑幼坐.....還復 就坐	구준의 설과 本儀가 같지 않으나 내용이 상세해 수록.
	古有胎教	설명.
	六歲.....誦之	설명.
	七歲.....食無時	설명.
	八歲出入.....中門	설명.
	十歲男子出就外傳.....文辭	설명.
	禮記	설명. 土禮 즉 儀禮.
	異端.....其志	순자와 楊雄의 학문은 정자와 주자가 배척. 사마광 은 양옹을 존신하여 책에서 취하였으나 주자가 刪 定하지 못함. 가례를 未成之書라고 하는 이유도 이 에 연유.
	女子.....及女工之大者	설명.
	凡內外僕妾.....以供百役	여러 설 소개.

冠禮	大功未葬亦不可行	여러 설 소개. 齊衰 이상 斬衰는 불가.
	古禮筮日	의례에서는 2월에 택일하는데 가례에서는 정월에 택일.
	宿賓	가례에서 주인 대신 자제를 보내는 것은 간략함을 따르는 것.
	壺	가례의 戒賓辭는 의례에 기본하였지만 지금에 마땅한 것이 아님. 古법이 맞게 고침.
	櫛鬻掠	구준 설 설명.
	四襟衫	구준과 사마광 모두 의문.
	入門.....至堦	설명.
	帽子.....繫鞋	여러 설 소개. 古服이 아닌 一時之制. 古법의 설이 時俗 반영.
	幘頭.....納靴	구준의 설이 時制 반영. 그러나 송대와 다름.
	賓復位東向答拜	향음주례, 향사례의 경우와 다름. 구준이 의례를 따라 보완.
	進席前.....跪啐酒	향음주례와 다름.
	賓或別作.....之意	가례의절에서 보충한 글귀가 의례에 없고 가례에서도 그대로 따름. 따라서 첨가할 필요가 없음.
	儻皮	설명.
	筭	예기와 가례의 내용이 틀림.
冠筭	자신의 설 수록.	
雙紒	설명.	
昏禮	昏禮	설명.
	大功未葬.....主昏	설명.
	但宗子自昏.....之長爲主	國俗이 禮文에 맞지않고 세상도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지 못하여 상세히 수록함.
	指腹爲昏	설명.
	遂奉書.....祠堂	구준의 설에 의하면 納采에도 幣物이 있음.
	納吉	설명.
	幣用色繒.....多不踰十	설명.
	但不告廟	의례를 따른 구준의 설도 가례와 다르지만 일리가 있음.
	命服	命服은 고례.
	無違爾閨門之禮	설명.
	凡贊用生厲.....交絡之	여러 설 소개. 의례와 가례의 의도가 같음.
	無則刻木爲之	설명.
	舉殽	설명.
	不祭無殽	가례의절의 항목이 가례에도 없으니 잘못된 것 같음.
謬誤.....勿用可也	習俗이 변하기 어려움.	
舅姑.....東西相向	가례의 내용이 고례와 다름. 구준은 혹 풍속을 따라도 가하다고 봄. 禮의 變을 논한 것.	

昏禮	舅撫之.....姑舉以授侍者	가례의절의 내용이 가례의 뜻과 다름. 가례에서 폐백을 사용하는 것은 고례의 뜻이 아니라 당시 풍속을 따른 것.
	小卽	설명.
	小姑	설명.
	洗盞斟酒.....婦降拜	가례의절의 내용이 세속의 禮를 취하여 가례 節文의 바른 것이 아님.
喪禮	古者三月而廟見.....改用三日	이유 설명.
	男子不絕.....男子之手	구준과 高閑의 설이 다름. 고향의 설은 문제가 있음.
	廢牀寢於地註	설명.
	侍者一人.....右執要	설명.
	呼某人者從生之號	설명.
	立喪主	가례가 하나로 설명했다면 가례의절은 나누어서 설명.
	雜記曰.....里尹主之	주자는 古法이 이미 폐해졌으니 융통하여 행할 것을 제시.
	喪大記.....無無主	설명.
	妻子婦妾.....扱上衽徒跣	본래 고례에는 被髮者가 없었음. 사마광이 개원례를 따름.
	油杉爲上.....土杉爲下	설명.
	糝米灰	설명.
	施簣.....設席枕	가례의 席字는 衍字가 아닌지 의심스러움.
	握手.....裹手者也	설명.
	袍	설명.
	汗衫	설명.
	米二升.....實于盤	여러 설 소개. 어떤 설이 맞는지 모르겠음.
	主人以下皆出帷外北面.....拭以巾	가례에 無浴衣가 없는 것은 간편함을 따른 것.
	去病時衣及復衣	고례에 옷을 놓는 규정이 없음. 시속에서 혼백상자에 넣는 것도 근거가 없음.
	主人坐於牀東奠北.....無服在後	예기 내용 수록.
	主人哭盡哀.....要之右	여기의 袒은 袒括髮의 단과 다름. 古人은 敬事 때 단을 사용.
	束以絞紵	陳氏集說의 설이 틀림.
	古人遺衣裝.....歲於廟中	주자를 비롯한 여러 설 소개.
	結白絹爲魂帛	帛을 사용하는 것은 고례가 아니라 역시 가능.
	古者鑿木爲重以主其神	여러 설 소개.
	用束帛依神.....亦古禮之遺意也	예기 주소의 설이 잘못. 정이와 장재의 설이 타당.
	銘旌	여러 설 소개. 書銘은 천자부터 士까지 다 같음. 사마광과 주자의 설도 맞음.

喪禮	七七日	七七齋는 七虞에서 나옴. 劉氏의 예를 모범으로 실음.
	百日	百日齋는 百日 卒哭에서 나옴. 백일 졸곡 역시 權制
	主人未成服而來哭者當服深衣	여러 설 소개.
	主人相向哭盡哀....無辭	구준의 설로 미진한 곳을 보완하니 喪이 있는 자는 참고함이 가함.
	括髮.....別室	여러 설 소개. 縫紉之說은 고례에 없고 세속에서 행하는 것이나 무방.
	設小斂牀.....掩首及足也	여러 설 소개.
	侍者盥水.....小斂牀上	가례에는 없는 구절을 개략적으로 수록.
	又卷衣.....餘衣掩尸	설명.
	左衽不紐	가례의절은 가례에 없는 것을 예기에 의거해서 보완.
	去冠梳	설명.
	入門詣柩前.....哭盡哀乃就東方.....如始喪之儀	가례의 再拜之文은 시속에 기인한 것 같음.
	詣殯東面.....如小斂之儀	설명.
	明日後日朝夕哭猶袒括髮	설명.
	卑幼者皆再拜	가례의 이 구절은 시속에 기인한 것 같음. 기준의 설도 약간 다름.
	衾用有綿者	가례와 사마씨서의예 예기의 내용이 빠진 것이 있음. 없는 자를 위해 간편함을 따름. 그러나 예기대로 하는 것이 예의 뜻을 얻는 것. 없는 자는 가례대로 하는 것도 역시 가함.
	高氏曰.....堅之急也	가례의 圖註는 오류가 있음. 附註의 高閑의 설도 상세하지 못함. 구준의 설이 상세히 수록하여 참고 할 것이 있음.
	侍者先置.....四外	가례는 소략하고 가례의절에 있으니 참고가 가함.
	舉尸納于棺中	세속에서 棺中에 대렴을 행하는 것은 주자의 본의도 아니고 고례도 아님. 讀禮者는 세세히 상고할것.
	既大斂則累塹塗之	여러 설 소개.
	齊衰寢席	설명.
大功.....復寢	설명.	
喪禮 (사후 편집)	相弔如儀	가례의 이 항목이 가례의절에 없어 구준의 설을 수록함.
	魯莊公.....服大功	설명.
祭禮 (사후 편집)	致齊於內.....不如葷	지금 忌齊 때 술과 고기를 먹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은 情과 禮에 합치하지 않음